

# 사회인 야구 동호회 운영의 장애요인 분석

윤현정\*, 오현택\*\*

## 요약

이 연구는 생활체육 동호회로서의 사회인 야구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리고 생활체육으로서 사회인 야구가 활성화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자료는 현재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면담 자료는 귀납적 분석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과정으로 진행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회인 야구의 조직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호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야구 시설 및 인프라의 확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 야구에 있어서 지도자, 프로그램, 홍보는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Analysis of Barriers to Managing an Amateur Baseball Club

Hyun-Jung Yoon\*, Hyun-Taek Oh\*\*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moting plan and the improving direction for qualitative growth of amateur baseball club through collecting the field work data about barriers to managing club from qualitative method and comparison with previous studies. Three general managers of amateur baseball club were selected for collecting data by interview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inductive analysis. The main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present operating status of organizations for amateur baseball club were irrational and their communication with baseball club members was closed. Second, new construction of baseball park and building infrastructure was the top priority for promoting of amateur baseball club. Third, instructors, programs and public relations for amateur baseball club were not reflected the special quality of amateur baseball club as a event of sport for all.

Key Words : Sport for All Club, Barriers to Managing, Amateur Baseball Club

---

\* 에원예술대학교 스포츠학과(☐1230yellow@hanmail.net)

\*\* 에원예술대학교 스포츠무도복지학과

· 제1저자(First Author) : 윤현정 ·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 : 오현택

· 접수일(2012년 11월 27일), 수정일(1차 : 2012년 12월 14일), 게재 확정일(2012년 12월 18일)

## 1. 서론

프로야구가 700만 관중 시대를 맞으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로 야구에 대한 직접적 참여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생활체육 구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와 비교했을 때 시설과 장비 부분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들고 다양한 운동기능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스포츠였던 야구가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최근에서야 마련되었다. 그것은 바로 야구 대표팀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의 선전이었다. 이 두 대회를 계기로 대표적인 생활체육 동호회라 할 수 있는 사회인야구 동호회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박상용, 오현택, 김영구, 2011).

1970-80년대 고교야구와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에 열광한 야구팬들이 '보는 야구'에서 벗어나 '직접 즐기는 야구'로 돌아서며 동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최두성, 2011). 문화체육관광부(2010)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야구 종목의 동호회 가입 인원이 상위 10종목 내에 포함될 정도로 동호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는 야구'가 '직접 즐기는 야구'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생활체육에서 야구라는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인 야구의 폭발적 팽창에는 앞서 언급했던 국제대회에서의 잇따른 쾌거와 이로 인한 프로야구의 흥행 등의 표면적 이유 외에도 야구가 국내 관람스포츠 중에서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 인기종목이라는 잠재적 이유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0)의 국내 운동경기 관람 행태 분석에 의하면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황두철(2010)은 이러한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폭

발적 증가 현상을 그동안 참여기회의 부재로 억눌려 있던 야구를 향한 잠재적인 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폭발적 증가는 또한 야구라는 종목만이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으로서의 매력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강유원, 남승우, 김태현(2010)에 따르면 생활체육으로서 사회인 야구의 특징은 신체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동료애, 팀워크, 책임감, 사회성 형성 같은 사회적 가치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사회인 야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인 야구 활동 참여가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이찬진, 2007), 신체적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주며(위대한, 이철원, 전홍조, 2011),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참여를 통해 몰입의 수준을 증진시켜 여가만족과 심리적 행복감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강지현, 양 결, 2011; 임범규, 조광민, 석부길, 2011) 등 생활체육 종목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생활체육으로서 사회인 야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호회와 동호인 수의 증가를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의 비약적 발전을 기정사실화 할 때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운영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마주치게 되는 장애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질적으로 성숙된 생활체육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목적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생활체육야구 리그의 변천과정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 홍충선(2009)의 경우 연구 대상이 실제 동호인이 아닌 야구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생활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인야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황두철(2010)도 사회인 야구 활동에서 나타

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야구 관련 단체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내용을 주요 자료로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인 야구 활동에 참여하고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겪게 되는 장애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 요인들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하고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사회인 야구의 활성화와 질적인 발달을 위한 개선방향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생활체육 정책 수립과 스포츠클럽 육성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발전에 일조하는데 궁극적인 연구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2.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3명의 사회인 야구팀 감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사회인 야구 참여 경력은 7-11년이고 팀에서 감독을 맡은 경력은 3-6년이다. 이들은 사회인 야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대에 있으며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야구에 대해서만큼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formants

참여자	나이	직업	사회인 야구 참가 경력	감독 경력	가입 리그	연합회 가입 여부
P감독	41세	중학교 교사	11년	6년	인천 S리그	비가입
K감독	42세	회사원	10년	3년	인천 I리그	가입
A감독	38세	개인 사업	7년	4년	경기 G리그	가입

사회인 야구팀의 감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 활동에 있어서의 장애 요인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클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회인 야구팀의 감독은 연습 및 게임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클럽의 운영 사항을 결정하거나 클럽과 리그 운영진 및 연합회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제반사항에 개입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감독은 생활체육 동호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이며, 때로는 리그의 운영진에 참여하기도 하고 연합회 임원이 되기도 하여 누구보다도 생활체육 현장의 분위기를 몸소 체험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의 한 사람인 P감독의 경우 오랫동안 해당 팀이 소속된 연합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K감독의 경우는 지역 연합회장기 대회나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구성되는 리그 선발팀의 감독을 여러 차례 맡은 경력도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친밀감에 따른 라포(rapport) 형성의 용이성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중 P감독과 K감독은 연구자가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팀의 감독이며 A감독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클럽의 감독이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연구자를 사회인 야구 참여로 이끌어 준 사회화 주관자이자 동료로서 사회인 야구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적절한 대상이기도 하다.

## 2.2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은 주로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제 연구의 자료로 활용된 면담이 실시된 시기는 2011년 10월에서 2012년 9월까지이며 면담의 주기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는 감독자 모임이나 연합회 행사 등에 감독들이 참석할 때 연구자도 함께 참석하여 실시한 공식적인 경우가 2차례 있었고, 그 외 사적인 자리에서의 면담이 수십 차례 이루어졌다.

면담의 형식은 개별 면담뿐만 아니라 단체 면담도 실시가 되었으며, 면담의 내용은 주로 동호회 운영에서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및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녹취되었다.

## 2.3 자료 분석

수집된 면담 자료는 귀납적 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녹취된 면담 내용을 전사를 하여 공동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나누어 읽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추출된 핵심 내용을 공동연구자들이 다시 주제별로 분류하고 회의를 통해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면담 자료가 총 세 개의 주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인 가치나 신념의 해석보다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하였다.

## III. 결과 및 논의

### 3.1 연합회는 필요 없다! : 조직

생활체육조직은 생활체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며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어디

까지나 생활체육의 발전 그리고 생활체육 참가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생활체육조직은 동호인들이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장벽 내지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를 총괄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http://www.kfbbaseball.com/>)에 따르면 2011년 현재 16개 시도 연합회에 192개 시군구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 등록된 클럽의 수는 5,133개이며, 동호인 수는 124,557명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사회인 야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야구연합회에도 산하에 11개 리그, 354팀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야구연합회 및 산하 지역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고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그의 숫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상용, 오현택, 김영구, 2011). 인천 지역만 보아도 인천야구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리그의 숫자는 약 19개 정도이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팀의 숫자는 480여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많은 클럽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으로써 야구를 즐기려 하고 있고 그들을 생활체육 참여로 이끌고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연합회와 리그라는 생활체육 조직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체육 조직이 과연 얼마나 사회인 야구 클럽과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리그는 올해부터 연합회 탈퇴했어. 구장 확보 때문에 마찰도 있었지만 일단 연합회 행사에 동원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팀에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 나도 실제로 우리 팀원들한테 전화해서 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기 싫었거든. 야구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쓸데없이 이런저런 행사에 머리수 채우러 다니는 거 같잖아. (P감독, 2012년 1월)

우리 팀도 여기 리그에서 오래 했지만 연합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팀원들 반발이 많아. 특히나 우리 리그가 연합회 주축을 이루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때마다 한 번씩 모이라고 해서 쓸데없이 정치꾼들 연설에 야구장 새로 지어주겠네 모 해 주겠네 하는 거짓말 듣는 것도 지겹고. 우리가 야구하고 싶다고 리그 가입한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 들러리 서겠다고 돈 낸 건 아닌데 말이야. (K감독, 2012년 4월)

생활체육 조직으로서의 연합회에 대한 사회인 야구 현장의 인식은 조직의 무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참여 목적은 다양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내적인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조직은 오히려 이러한 내적인 동기를 일정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연합회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정치인들에 의해 움직인다거나 상위에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부정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저 야구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을 이리저리한 행사에 반강제적으로 동원하기 때문에 조직은 동호인들을 위해 있기 보다는 정치인이나 행정기관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동호인들의 진정한 참여 목적이나 욕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홍충선(2009)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체육야구 진흥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행정적인 문제이다. 즉, 생활체육야구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의 부재 및 연합회와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관계는 단지 야구가 좋아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동호인들에게 오히려 생활체육 조직은 있으나 마나한 귀찮은 존재인 것이다.

대구 지역의 사회인야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한 황두철(2010)도 사회인야구의 문제점으로 야구 인프라 부족과 함께 행정기관의 무관심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김영선(2009)에 따르면 국내 생활체육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종목별 연합회나 각 클럽의 자율성과 자생력이 확보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인 야구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별 연합회가 정부 조직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각 클럽의 자생력 및 자율성 확보는 요원해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연합회 무용론'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연합회를 떠나 비교적 정부조직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리그에 가입한다면 어떨까? 그들은 생활체육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처음 팀을 만들었을 때는 연합회 미가입 리그에서 시작했어. 연합회 가입되어 있는 리그는 빈자리도 안나고 자리가 생겨도 들어가기 힘들더라고. 공개적으로 팀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팀을 선정하는 거 같더라고. 물론 연합회 가입된 리그가 리그비가 싸긴 하지만 들어가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내고라도 다른 리그로 들어갔던 거지. 그리고 연합회장기 대회라고 하는데 연합회 미가입 리그 팀들은 참가자격이 없다고 자기들끼리만 대회를 하더라고. 작년에 있던 리그는 연합회 가입 리그는 아니었는데 지정된 식당이나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아주 엉망이라서 1년만 하고 나와 버렸어. (A감독, 2012년 1월)

생활체육 조직으로서의 연합회의 무관심과 부조리를 벗어나 독립리그에 가입 한 동호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바로 불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리그의 경우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조직이다 보니 리그운영

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자가 마음대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결하는 방식이 법에 호소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두철(2010) 또한 리그 참가비용이나 리그 운영에 있어 어떠한 조직의 감독이나 관리도 받지 않는 이러한 독립리그들이 독단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생활체육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게 된 꼴이다. 연합회라는 생활체육 조직이 애초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동호인들이 이러한 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인야구에 있어 서비스품질요인을 분석한 김현석과 김정민(2009)의 연구에서는 리그 사무국의 업무처리, 심판의 공정성, 경기진행 등과 같은 신뢰성, 리그와 클럽 간의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공감성 및 응답성, 리그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확산성 같이 생활체육 조직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비스 요인들이 리그의 재가입 및 추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야구리그의 운영에 대해 연구한 구수용과 윤양진(2010)도 동호인들과 리그 관리자 및 경기 중 심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사회인 야구 운영에 있어 생활체육 조직의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2 야구장 찾아 삼만 리 : 시설

축구장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활동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장에서는 오로지 야구밖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설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인 야구 클럽과 동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에도 모자라던 시설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2011)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전국 야구장의 숫자는 총 77개이다. 이 수치는 2008년 기준의 51개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지만, 동호인들에게는 남의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여기서의 야구장이란 엘리트 선수들이 연습 및 경기를 위해 사용하는 정식 규격의 것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야구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이런 정식 야구장을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엘리트 선수들에 비해 대관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인 야구 경기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비규격 야구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인 야구 열기를 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KBS에서 방영되었던 '천하무적 야구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야구장을 새로 건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는데, 이것이 국내 사회인 야구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시설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우리 리그에서 ○○구장을 이용해서 그러저럭 잘 썼는데, 그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올해부터 사용을 못하게 됐어. 그래서 올해는 여기저기 학교 운동장 돌아다니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지 뭐. 축구골대 피하면 농구골대 있고, 바닥은 돌투성이고 가끔가다 조기축구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구장이 가깝긴 한데 선수들 우선으로 대여해 주니깐 빌릴 엄두도 못 내고. 이젠 모여서 간단히 연습할 공간도 없어. (K감독, 2012년 3월)

지금 있는 리그는 운동장이 아주 좋아. 일단 야구 전용구장이고 리그에서 관리도 아주 잘 하는 거 같아. 작년에 했던 리그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 운동장이었는데, 스케줄 잡아 놓고도 야구부 연습에 학교

행사에 취소 되서 못할 때도 많았고 리그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도 안 해서 비 조금만 와도 경기 취소되고 했거든. 작년에 원래 14경기 하기로 하고 가입한 건데 결국 1년 내내 8경기밖에 못했잖아. (A 감독, 2012년 9월)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장은 바로 야구부가 있는 학교 운동장일 것이다. 축구 경기를 중심으로 설계된 일반 학교들의 운동장에 비해 규격이나 마운드와 그물망 같은 부대시설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 야구부와와의 일정 조정 문제 및 학교 행사와 맞물릴 경우 동호인 경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10년 전엔 우리도 전용구장에서 처음 시작했어. 근데 그 운동장 소유 회사 사정으로 구장이 없어지면서 연합회 운동장 빌려 쓰기 시작한 거지. 남의 운동장 빌려 쓰다 보니 이래저래 눈치도 보이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특히 연합회 운동장은 자기네 행사가 우선이라 사용문제로 마찰도 많았어. 작년에 겨우 S 구에 운동장 마련했는데 이번엔 천하무적야구단 때문에 방충 타서 문제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나마 제대로 된 운동장 하나 마련한 거지. (P감독, 2012년 2월)

실제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리그들도 꽤 있지만 대부분이 정식 규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체육시설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야에 불법으로 야구장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시즌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어 결국은 리그가 와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한다.

홍충선(2009)의 연구에서도 생활체육야구 진흥을 위한 4가지 분야의 정책별 중요도에서 생활체육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파이 기법으로 이

루어진 이 연구의 조사 대상들은 대부분 생활체육 야구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이나 협회 관계자였는데, 야구장 신축관련 법 개정과 기존 시설인 학교 및 공터의 활용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김홍남과 최정웅(2008)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체육시설이 확보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김영선(2009)도 생활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스포츠시설의 공급과 활용에 있어 기존 시설 활용의 극대화가 중요함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황두철(2010) 또한 사회인야구의 문제점으로 리그와 야구장의 부족을 지적하며, 인프라 구축의 주체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방치에 가까운 무관심으로 인하여 기존의 야구장에 대한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운동장 사용권을 두고 리그끼리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리그 참가비용의 지속적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동호인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김경숙, 김선희, 허현미(2006) 또한 생활체육 동호회 운영의 장애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운동시설 부족 및 열악, 사용료 부담 등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김현석과 김경민(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이 재사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물리적 시설에 관한 요소이며,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재사용 및 추천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호인들이 기존의 리그에 다시 가입을 하고 다른 동호인들에게 그 리그를 추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설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구수용과 윤양진(2010)의 연구에서도 야구장의 접근성, 야구장의 수와 필요시설 구축(마운드, 베이스, 펜스, 라인 등), 부대시설의 구비, 야구장의 이용편리성 및 주차 용이성 등 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은 동호인들이 인식하는 중요도는 높는데 비해 만족도가 낮은 속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야구 동호인들은 야구장이라는 시설과 인프라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시설에 대한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는 야구장 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3.3 니들이 사회인 야구를 알아? : 지도자, 프로그램 및 홍보

조직과 시설 외에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구성요소로 지도자, 프로그램, 홍보를 생각할 수 있다(이 혁, 이제홍, 2009).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의 경우 종목의 특성상 각 클럽들이 리그에 가입해 1년 단위로 시즌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과 시설이라는 구성요소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인 야구 현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생활체육으로서의 야구에 적합한 지도자, 프로그램,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인 야구에서 지도자는 대개 '선출'이라고 불리는 선수 출신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과 같이 전문적인 지도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보다는 단지 엘리트 선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출하기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사회인 야구팀들이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출신 동호인을 통해 소위 말하는 '레슨'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 동호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야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동호인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레슨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나마 있던 선출 지도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이들이 전문적으로 야구 레슨을 하는 업체를 만들다 보니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야구를 배우는데 들어가는 시간적이고 금전적인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서 레슨 받는 거 하나도 소용없어. 선수 출신들이야 기본적으로 체력이랑 기본기가 있으니까 레슨도 해 주고 레슨을 받아도 실력이 늘지만 배 나온 아저씨들이 기본기도 없고 체력도 없는데 선수들이 하는 걸 어떻게 따라하냐고? 사회인 야구는 엄연히 생활체육이니까 선수들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동호인 수준에 맞게 체력적인 것도 고려하고 기술적인 것도 고려해서 지도를 해 주어야 할 텐데 그저 자기들이 선수 생활할 때 배운 데로만 가르치니까 자기들도 답답하고 배우는 사람도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 (A감독, 2012년 7월)

예전에는 팀에 선출이라도 한명 있으면 틈틈이 레슨도 해 주고 했는데 ... 요즘엔 워낙 동호인들이 많아 지다 보니깐 그것도 장삿속에 넘어가더라고. 레슨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같은 팀원인데도 예전처럼 편하게 레슨받기가 힘들어. (P감독, 2011년 10월)

생활체육 현장에서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김경숙, 김선희, 허현미, 2006; 김영선, 2009). 그런데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으로 야구를 배우는데 있어 문제는 생활체육에 적합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대개 선수 출신으로 자신들이 연습하고 훈련해 왔던 방식대로 동호인들을 지도하다 보니 생활체육 활동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과는 다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으로서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홍충선(2009)의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생활체육야구의 보급을 위해서는 전담 지도자의 수적 공급 및 배치의 필요함을 주장하고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자질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무조건적으로 지도자의 숫자를 늘리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를 이해하고 동호인들의 수준에 맞춘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양성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도자 양성과 배치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재 기초 기능 연습과 게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인 야구 프로그램도 생활체육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이라고 할 게 뭐 따로 있나? 그저 게임만 하는 거지. 리그 게임하다가 중간에 토너먼트 대회 같은데 한 번씩 출전하고 하는 게 다지 뭐. 그것도 운 좋아야 참가할 수 있는 거지 아무 팀이나 나가는 거 아니잖아? (K감독, 2012년 3월)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이 레슨을 받게 되면 대개는 수비 연습, 타격 연습, 간이 게임의 순서로 지도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지도방식은 단순히 기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잘 하게 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리그에서도 1년 내내 게임 외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 사회인 야구의 실정이다. 즉, 사회인 야구의 프로그램은 단지 기능을 연습해서 게임을 잘 하게 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홍충선(2009)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빈곤함을 주장하면서 생활체육야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생활체육야구 선택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체육야구 프로그램의 단계적 구성으로 리그의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황두철(2010) 또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클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체계적인 야구교육을 통해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한편, 연식야구와 티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서도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인 야구 현장의 목소리와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기능 연습과 게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회인 야구 프로그램은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 정도의 연습과 게임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로그램만으로는 생활체육을 통한 사회교육적 기능이나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운용 등(2003)에 따르면 생활체육 활동에 불참하는 이유로는 시간제약이 우선적으로 꼽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적절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극복될 수 있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가 있어야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지속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이나 운동개념으로 사회인 야구 하는 건 아닌 거 같아. 좋게 말하면 여가 선용이나 친목도모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 한다고 해서 건강해 진다고 할 수도 없고. 요즘엔 인터넷 같은 걸로 다 팀 모집하고 선수 모집하고 하니깐 특별히 홍보라고 할 게 뭐 있겠어? 연합회 차원에서도 아름아름 홍보해서 팀 모이면 리그 시작하고 돈이나 챙기는 거지 뭐 특별히 하는 거 있나? (A감독, 2012년 3월)

사회인 야구는 앞서도 지적되었던 조직 운영의 합리성이나 시설의 부족 등에 따라 홍보 또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하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지극히 소극적이고 불친절한 홍보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수용과 윤양진(2010)도 생활체육 야구리그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리그의 홍보 및 정보체계 구축, 타 리그와의 교류 및 연계, 타 리그조직과의 연계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리그가입 규정 및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제정하여 가입 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가입 동호회에 대하여 균등한 물질, 인적 자원을 지원하게 하며, 정보의 체계적 구축과 타 리그와의 교류 및 연계를 통해서 협력한다면 야구리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두철(2010) 또한 사회인 야구리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거나 지역 미디어를 활용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호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회인 야구 참여로 이끌고 생활체육으로서 야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되었던 생활체육 야구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야구 시설 및 인프라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생활체육 동호회로서의 사회인 야구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리고 생활체육으로서 사회인 야구가 활성화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사회인 야구 현장의 목소리와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회인 야구의 조직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호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과 다른 조직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동호인들의 참여 목적을 달성시켜 주고 욕구를 해소해 주는데 있어 무능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인 야구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야구 시설 및 인프라의 확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회인 야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많은 수의 클럽과 동호인이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한 야구장 시설은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 활성화에 있어 근본적인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인 야구에 있어서 지도자, 프로그램, 홍보는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활동으로서의 사회인 야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으로서의 야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지도자의 양성과 생활체육의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공, 참여 기회의 확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합회나 리그와 같은 사회인 야구 조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따른 종속 현상을 막기 위해서

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대신 철저한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합리적 운영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감사 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인 야구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함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야구장 시설 확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 완화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야구장 시설의 확충은 경계해야 하지만 사회인 야구 현장의 수요를 전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야구장 신축 및 시설의 보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축구장 중심의 야외체육시설 설치에 더해 야구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으로의 활용이 가능한 복합시설 건립이 필요하며,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공유지나 유희지 등을 활용한 간이야구장 증설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로지만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의 활성화는 야구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설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 추진력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생활체육으로서의 사회인 야구에 적합한 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수 출신 지도자들에 의한 기능 연습과 게임 중심의 지도 및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생활체육 지도에 전문적인 야구 지도자 양성과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야구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대로 리그 차원에서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연합회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Park, S. Y., Oh, H. T., & Kim, Y. K., "The Subcultural Characteristics of Amateur Baseball Club Members Focused on Purchase of Baseball Equipme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0, No. 1, pp.205-218, 2011.
- [2] Choi, D. S., "No More Watching Baseball, Let's Play Baseball in Parks," Daegu: *Maeil Newspaper*, 2011, November 24, p. A4.
- [3]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Survey 2010 Annual Report*,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10.
- [4] Hwang, D. C., "A Promotion Plan of Amateur Baseball for Recovery Reputation that Daegu is a Baseball City," *Hard Study on Daegu Local Government*, Vol. 22, pp.61-84, 2010.
- [5] Kang, Y. W., Kim, T. H., & Nam, S. W., "'Taste', 'Chic' and 'Fascination' of Society Baseball," *Philosophy of Movement: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and Dance*, Vol. 18, No. 3, pp.45-61, 2010.
- [6] Lee, H. J., "Effect of Participation in Baseball League on the Satisfaction of Company Workers' Lives," Unpublished Mas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2007.
- [7] Wi, D. H., Lee, C. W., & Jeon, H. J., "The Relationship between Serious Leisure and Physical Self-Efficacy for the Participants in Social Baseball Club,"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0, No. 5, pp.145-155, 2011.
- [8] Kang, J. H., & Yang, G., "The Influence of the Flow Experience on the Leisure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in the Baseball Clubs,"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0, No. 3, pp.849-860, 2011.
- [9] Im, B. G., Cho, K. M., & Seok, B. G., "A Path Modeling Approach on Relationships among Leisure Flow,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in the Amateurs Baseball League,"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0, No. 2, pp.127-144, 2011.

- [10] Hong, C. S., "The Study on History and Improvement Program for Baseball Club Teams in Korea," Unpublished Maser's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eoul, 2009.
- [11] Korea Baseball Federation in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http://www.kfbbaseball.com/>
- [12] Kim, Y. S., "Policy Development of Prosperity for Sport Club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2009.
- [13] Kim, H. S., & Kim, K. M., "The Effect of Service Quality Factors on Facilities Satisfaction of the Members and Re-use and Recommend Convention in Social Baseball Club,"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18, No. 1, pp.475-486, 2009.
- [14] Koo, S. Y., & Yoon, Y. J.,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Sports for All Baseball League's Oper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42, pp.431-442, 2010.
- [15]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10 Sport White Paper*,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11.
- [16] Kim, H. N., & Choi, J. W., "Activation Plan of Life Athletics with the Analysis of Athletic Faciliti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33, pp.317-326, 2008.
- [17] Kim, K. S., Kim, S. H., & Huh, H. M., "Inquiry of Barriers and Alternatives of Managing Sport for All Club,"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28, pp.125-138, 2006.
- [18] Lee, H., & Lee, J. H., *A Theory of Sport for All*, Seoul: DK Books, 2009.
- [19] Lee, W. Y., Lee, Y. S., Bae, Y. J., Lee, I. Y., Park, M. S., Cho, J. H., & Lee, D. T., "Prevalence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Physical Activities and Suggestion of Alternative Strategies Improv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 Case of Gangbukgu Province,"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 14, No. 4, pp.141-150, 2003.

## 저자소개

### 윤현정(Hyun-Jung Yoon)



1992년 :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학사)  
 1996년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학과(석사)  
 2006년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박사수료)

2011년~현재 예원예술대학교 스포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운동처방, 스포츠영양, 스포츠생리학

### 오현택(Hyun-Taek Oh)



2000년 : 인천대학교 체육학과(학사)  
 2002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석사)  
 2006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박사)

2010년~현재 예원예술대학교 스포츠무도복지학과 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철학, 생활체육